
 국토교통부	<b>보 도 자 료</b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3. 29(화) 총 5매(본문 2)	
담당 부서 공간정보진흥과	담 당 자	• 과장 임헌량, 사무관 김영지 • ☎ (044)201-3469, 3473	
보 도 일 시	2016년 3월 3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30(수) 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,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공간정보산업 집중 육성 - 산업 육성을 위한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공간정보 융복합 신산업 창출 및 공간 정보기업 역량 강화 등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('16~'20)을 마련해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.
    - 공간정보산업은 인프라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영역과의 융복합이 용이하므로 인공지능기술 등 미래유망분야와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.
    - 이번 계획은 드론 및 자율자동차 기술, 지능정보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과 구글 등 세계적 기업 중심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 - “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대도약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”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- ‘창의적인 융복합 산업 창출 지원’을 위해 미래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분야 국가기술지도\*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- \* 국가기술지도(National Technology Roadmap): 미래 시장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할 기술을 예측하고 추진방안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기획방법

- 또한 시스템 개발 인프라 환경\* 제공, 공간정보 무상제공 등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, 기존 기업과의 교류 등 창업행사 활성화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.

\* Open-API 기반 데이터 제공 플랫폼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(V-World)을 개방형 SW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해 기업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공통 인프라 환경을 제공

○ ‘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’를 위해 정부 3.0 기조에 따라 법으로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정보를 전면 개방하고, 다원화된 공유시스템\* 연계로 플랫폼 기반 공유체계를 구축한다.

\* 공간정보 오픈플랫폼(V-World),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, 수치지도 유통시스템 등 존재

- 그리고 자율주행차 운행 및 드론 길\* 등을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,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입체공간정보 등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생성할 예정이다.

\* 유/무인기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송전탑 등 장애물 정보를 포함한 3차원 정밀지도

○ ‘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’을 위해 연구개발비 등 세제혜택, 기술보증,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등 성장전반에 대해 지원하고,

- 융·복합 분야와의 패키지형 수출 모델 개발, 국토정보공사의 선제적 진출 및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우수 공간정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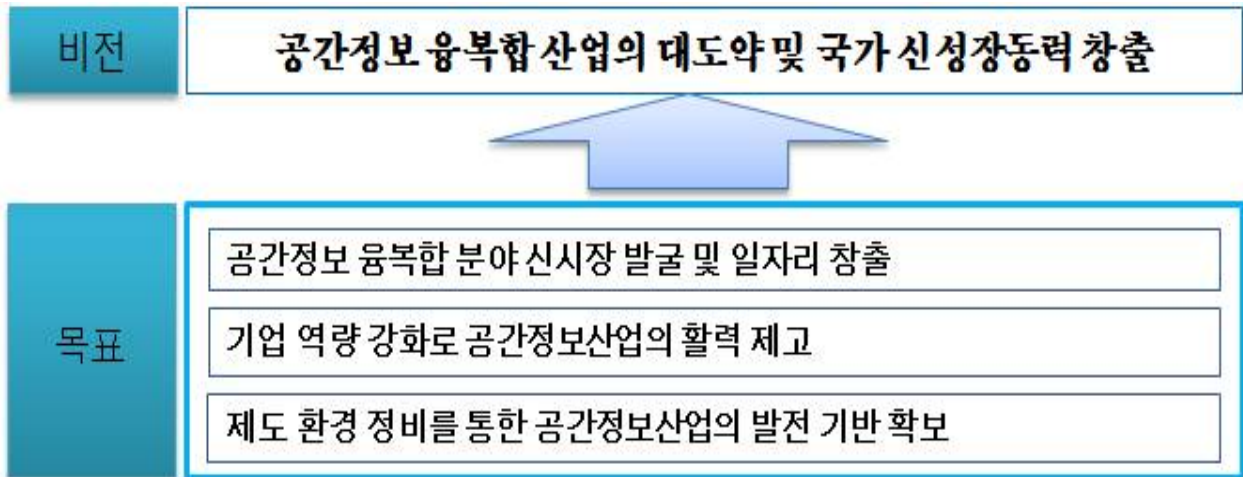
- 또한 공제제도 및 오픈소스 GIS솔루션 개발 환경 지원 등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방식, 표준화된 노임 대가기준 등 제도 개선으로 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계획으로 5년 간 총 798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,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, 2020년까지 산업 규모 15조원, 종사자 수 10만명 수준으로 성장시켜 다른 산업에서 8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김영지 사무관(☎ 044-201-34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비전 및 목표**



전략	추진과제
1. 창의적인 융복합 산업 창출 지원	1-1. 국가기술지도 기반의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발굴 1-2. 미래 신산업 중심 R&D 환경 조성 1-3. 창의적 융복합 영역 확대를 위한 창업 활성화 1-4. 공간정보 융복합 수요 발굴
2.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	2-1. 공간정보 개방 확대 및 공유 체계 정비 2-2. 미래 산업수요에 기반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2-3. 상호협력형 공간정보 표준화 추진
3. 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	3-1. 기술중심의 중견 기업 육성 3-2. 미래 선도형 창의인재 양성 3-3.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
4.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	4-1. 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4-2.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발전 환경 조성

## □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

### ① 창의적인 융복합 산업 창출 지원

- 미래수요예측 등을 통해 공간정보분야 국가기술지도\*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  - \* 국가기술지도(National Technology Roadmap): 미래 시장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할 기술을 예측하고 추진방안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기획방법
- 미래 신산업 및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(R&D) 발굴·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누구나 연구 개발(R&D) 성과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유시스템을 도입한다.
- 창업지원센터 기능 강화, 초기 창업 인프라 제공 등 스타트업 지원 확대, 창업행사 활성화 등 융복합 영역 확대를 위해 창업을 지원한다.
-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타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지자체 등 공공분야 및 공간정보 융복합이 가능한 잠재 기업군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수요를 발굴·확대할 계획이다.

### ②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

- 법령에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정보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, 다원화된 공유시스템 연계로 플랫폼 기반 공유체계를 구축한다.
- 자율주행차 등의 고정밀 위치정보,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입체 공간정보를 생성하고, 이를 편리하게 검색, 활용하도록 링크드 오픈 데이터(LOD) 체계 및 관심지점(POI)\*을 구축한다.
  - \* LOD(Linked Open Data): 웹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형태
  - POI(Point of Interest): 관심지역을 검색할 때 사용되는 지명, 지형·지물의 명칭
- 표준 관련 기관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대상 '표준 마일리지'\* 제도 운영 등 공간정보 표준 적용 활성화를 추진한다.
  - \* 공간정보사업 제안평가, 우수기업 선정 등 정책결정시 인센티브 부여

### ③ 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

-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공간정보업체를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, 기술, 인력 등 성장전반에 대해 지원한다.
- 초급기술·고급기술 인력을 구분해 양성하고 근무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, 공간정보 융복합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\* 교육을 실시·확대 한다.
- \*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: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(지식, 기술, 태도)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
- 해외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 기술·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진출 체계 지원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.

### ④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환경 개선

- 브이월드\*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전환, 공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·시행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.
- \* 공간정보 오픈플랫폼(V-World) : Open-API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공유체계
-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사업의 공간정보사업자 선정방식\*, 측량 업종 개편 등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주기적으로 발굴·개선한다.
- \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상 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’ 대상을 한정하고 국가,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자 선정방식 통일